

‘상속세 부담’ 매물나온 청호나이스… 노조 “밀실매각 반대”

가전통신노조 등 본사에서 기자회견
“회사, 노조 대화 조속히 나서야”
매각절차 참여·고용승계 보장 요구
“구조조정용 매각은 용납 못해”
칼라일 실사 진행… 국제정 조사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청호나이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매각 진행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6월 창업주인 정희철 회장이 별세한 이후 미망인인 이경은 이화여대의대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해 회사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 회장 사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청호나이스 인수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칼라일(Carlyle)이 적극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중소기업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과 청호나이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호나이스 본사에서 밀실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PEF에 매각될 경우 다른 M&A 선례를 감안할 때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을 동반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호나이스 본사에서 열린 ‘청호나이스 밀실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가전통신노조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청호나이스에는 콜센터 상담원, 방문점검직(플레너), 영업관리직(플레너지사장·팀장), 그리고 지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 소속 설치수리직(엔지니어) 등 약 6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노조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지부 김주태 지부장은 “매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매각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노동조합의 매각 절차 참여 보장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용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는 고인이 된 정 회장이 93년 창업해 2024년 기준으로 4730억원으로 ‘매출 5000억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업체의 대표기업 중 하나다. 주력인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청호그룹은 12개 계열사에 협력사만 400여 곳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제품 수출 국가는 전세계 70개국에 육박한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청호그룹의 총 매출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

청호나이스 지분은 고 정회동 회장이 75.1%로 대주주이고, 계열사인 마이코

로필터가 12.99%로 2대 주주다. 정 회장의 동생인 정희철 부회장도 8.13% 지분을 갖고 있다.

정수기 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마이크로필터는 정 회장이 80%, 이경은 현 회장이 20%의 지분으로 부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배타적 협상권을 갖고 청호나이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매각가는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계열사까지 약 8000억~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에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제정 조사4국은 최근 청호나이스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기아

상반기 대규모 채용 청년 일자리·신사업 강화

기아가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미래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채용에 나선다.

기아는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ICT ▲제조솔루션 ▲PBV ▲재경 ▲글로벌사업 등 34개 분야에서 상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공고는 모두 181건이다.

신입 채용은 오는 13일까지, 전환형 인턴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은 15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LS머트리얼즈

탈황모듈 공급 본격화 AI전력시장 공략 확대

LS머트리얼즈는 자회사 LS알스코가 최근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기업에 탈황장치 부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전력을 공급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탈황장치 모듈은 연료 내 황 성분을 제거해 연료전지의 수명과 효율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LS알스코는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매출 성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탈황장치 모듈 매출은 올해 15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이는 LS머트리얼즈의 2025년 연결 매출의 약 1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울트라캐피터(UltraCap)와 함께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KG그룹, 케이카 품고 모빌리티 밸류체인 강화

캐터스PE와 공동 투자 방식 추진
KG모빌리티·케이카·KG ICT 연계
제조부터 유통·금융·서비스까지 강화

KG그룹이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KCar(케이카)를 인수하며, 자동차 제조부터 유통, IT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KG그룹은 케이카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캐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 사업 확장이 아닌 KG그룹의 모빌리티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KG그룹은 ▲자동차 제조(KG모빌리티) ▲자동차 유통(K Car) ▲IT 플랫폼(KG ICT)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사업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 차량의 생산부터 유통, 금융·서비스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 전 과정(Value Chain)을 직접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시장 대응력과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케이카는 전국 48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한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인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비롯해 차량 매입·판매, 렌터카, 자동차 금융까지 아우르는 탄탄한 시장 점유율과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2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KG그룹은 케이카 인수로 KG모빌리티의 차량 생산 역량과 글로벌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케이카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결합해 차량의 구매·유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KG모빌리티의 해외 네트워크와 KG스틸의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활용해 중고차 유통·모빌리티 서비스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등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KG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를 넘어 유통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일상은 더 정숙하게, 아웃도어는 더 강인하게”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효율 앞세워
도심주행·장거리 이동 모두 만족
라이프스타일 SUV 가치 제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비주류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본래 거친 비포장도로를 주파하고 자연을 누비기 위해 탄생했다. 산과 바다 등 도심을 벗어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SUV는 이동수단을 넘어 레저 라이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자리해 왔다. 최근에는 SUV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략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 SUV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의 중형 그랑 콜레오스는 SUV의 강인함과 세련된 도심 주행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는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3만 5352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며 꾸준히 매월 약 1500대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는 그랑 콜레오스의 연료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랑 콜레오스는 15.7km/L의 연비

를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에도 도심 출퇴근은 물론 목적이 없는 장거리 여행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한다. 듀얼 모터 시스템과 1.64kWh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E-Tech 시스템’을 통해 도심 주행의 최대 75%를 전기 모드로 소화하는 뛰어난 효율성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2820mm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넓은 실내 공간은 머무름의 가치를 표현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는 쾌적하고 개성 있는 공간은 우리가족만의 안락한 베이스캠프로 완성된다.

그랑 콜레오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운 휴식으로 이어진다.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openR 파



르노코리아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노라마 스크린은 조용한 공간 속에서 OTT 콘텐츠 감상은 물론 음악, 게임, 노래방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정숙성을 구현했다. 야성과 세련된 도심의 일상,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은 결국 그랑 콜레오스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AI성능 높은 ‘갤럭시 북6’ 노트북 라인업 완성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성능을 강화한 노트북 ‘갤럭시 북6’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35.6cm(14형)와 40.6cm(16형), 2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색상은 그레이·실버로, 가격은 세부 사양에 따라 160만원부터 251만원까지 구성된다.

갤럭시 북6는 인텔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 빠르고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AI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해 초당 50조번(50TOPS) AI 처리를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